**출4038 Note**

**◆Cross check : 출1321, 출3307-11**

출1321. 그리고 여호와께서 낮에는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기 위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가셨으니, 이는 낮과 밤으로 가게 하려 함이시라.

출1322. 그분께서 낮에 구름 기둥을, 또는 밤에 불 기둥을 백성 앞으로부터 치우지 않으셨느니라,

출3307.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陣)[마하네: (여행자들이나 군부대의) 야영(野營), 군대,군인들의,춤추는 자들,천사들,가축,메뚜기,별들의 대군,떼,전장,천막,무리,장막들]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진(陣) 밖에 그것을 치니라, 그리고 그것을 "회중[모에드: 야아드(합의나 약속으로 정하다,정해진 시간에 만나다,어떤 자리나 지위에서 지시하다,약속하다,모이다,함께 만나다)에서 유래, 지정, 고정된 때나 계절, 특히 절기, 한해, (일정한 목적으로 모인) 회집,회중,집회장소,(미리 지정된)신호, 지정된(신호,때),성회,회중,(정한)절기]의 성막[오헬:(멀리서도 분명하게 보이는)장막,덮개,거하는 장소,가정,성막]"이라 부르니라,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여호와를 찾는(바카쉬:찾아내다,추구하다,구하다,청하다,간청하다,원하다,얻다,탄원하다,요구하다,요청하다,찾다) 낱낱의 자는 진(陣)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에로 나갔느니라,

출3308. 그리고 모세가 성막으로 나가는 때에,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를 마치는 때까지,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낱낱의 자가 그의 장막 문에서 서서, 모세의 뒤를 바라보았느니라,

출3309. 그리고 모세가 성막으로 들어가는 때에,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성막의 문에 서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니라,

출3310. 그리고 구름기둥이 성막 문에 서있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았으며,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각 사람이 그의 장막 문에서 경배하였느니라,

출3311. 그리고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얼굴을 마주보며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는 진(陣)으로 다시 돌아갔으나, 그러나 그의 종 눈의 아들 젊은이 여호수아는 성막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